

크스님 수행한담

욕심 버려야 합니다



90년 여름, 당시 부산불교연합회장 벽파스님(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연합회 간부 스님들과 함께 성지순례에 나섰다.

제나 손으로 훑아 버리지만 하셨습니다. 그 걸 보니 스님과 내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사람의 근본부터 일러주시더군요. "너는 부모에게서 몸을 받았지만 부모에게 몸받기 전의 너라고 한다면 너는 어디서부터 있었겠느냐" 라든지 "내가 나와 말을 할 때 그 말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나" 등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내 의문이 점점 깊어졌지요. 본래 그 암자에 간 목적은 따로 공부할 것이 있어서인데 그 공부는 별로 안하고 스님 법문을 듣고 참선·경전공부만 하고 지낸 셈이죠.

사람이 가야 하는 바른 길이 어디 있는가 하는 의문을 품고 집에 와서는 간단히

먹을려고 잠무리 했던 것인지 밤과 도토리가 발견되어 그러저럭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신장님의 가피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이지요. 그때는 어렵다느니 어렵다느니 생각도 없이 목숨을 걸고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한 셈이죠.

여러 선방과 토굴을 돌며 여러 경계를 맞으며 행각을 하고 지냈습니다. 한 절에서 출발하면 다음 절에서 저녁공양을 하도록 걸어서 다니는 것을 사참한다고 합니다. 절에 가면 크스님들 친견도 하고 자기 공부도 점검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하루는 오사사에서 점심을 먹고 출발을 해서 기림사로 향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인적도 없고 잘못

"새롭게 시작할땐 묵은 마음 버리세요"

"이웃 편안하게 하는것 자비행 입니다"

정리를 하고 한달뒤에 다시 절로 들어와 버렸어요. 속가와는 십년이상 소식을 끊고 지냈습니다. 범어사로 가서 머리깎고 그 이후 선방이나 토굴 등에서 공부하면서 지냈지요. 토굴에서 혼자 지낼 때는 힘든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찌 지내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대중들과 같이 지낼 때는 그냥 하는대로 같이 하면 되는데 토굴에서는 자신을 극복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태백산 토굴에 4개월 예정으로 들어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 5개월 반정도 지내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4개월의 최소 식량만 가지고 갔으니 한달 반 가량을 거의 굶다시피 하며 지냈지요. 그런데 마침 큰 나무에 다람쥐가

도 없는 곳에서 오두막 불빛을 하나 발견해서 하룻밤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오두막에는 노인 한분이 계셨는데 그 노인께서 고구마를 삶아 주시면서 얘기를 걸어 주셨습니다. "젊은 스님은 수좌십니까?" 하고 물었는데 나는 수좌라고 하고 다니던 때니까 당연히 "예"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자 그 노인은 한가지 물었다고 하면서 "부처님께서는 삼채전심을 하셨는데, 부처님께서는 일체전심만 하면 되는데 왜 삼채전심을 하셨습니까?" 하는 것이었어요. 삼채전심이라고 하면 연산회상의 열화미소, 다자담전에서 반분좌, 열반시각시생부, 즉 부처님이 마하가삼에게 법을 전할 때 세 곳에 걸쳐 세번 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수좌라고 했으니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할

다. 그 때 동산스님께서 일깨워 주신 것이 수행의 근간이 되어 어느 처소에서 무엇을 하든 그 가르침을 잊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자들도 생활속에서 공부하면서 지내야 합니다. 만물만생을 편안하게 해주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아내, 남편, 아이, 부모, 친구들의 마음부터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자비행입니다. 크고 멀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 가족, 친구, 이웃부터 편안하게 이끄는 것에 마음을 모아 간다면 저절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누구든 몸, 입, 뜻으로써 악업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이며 몸, 입, 뜻으로 선업을 행하는 자는 참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길을 제시할 뿐 행은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개져서 앉아 있다가 도망치듯 얼른 범어사로 돌아왔습니다. 동산스님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물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일체전심만 하면 되는데 왜 삼채전심을 하셨습니까?" 동산스님께서 "꿈도 생각도 없는데 너는 어느 자리에서 안심입명할 수가 있겠느냐?"고 되물어 오셨어요. 또 꼭 막혀 똥통 호통만 맞고 말았지요.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갑갑한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뒤 전라도 강진의 백련사라고도 하고 만덕사라고도 하는 도량에 가게 되었어요. 그 곳은 동산스님께서 좋아하시던 도량으로 뒷산에 오르면 남해바다가 환히 보이는 아주 절경이었습니다. 하루는 스님을 모시고 뒷산으로 산책을 가게 되었는데 앞서 가시던 스님께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스님께서 나를 그속히 바라보시며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시며 바다위를 날고 있는 갈매기를 가리키셨어요. 그때 내가 느낀 바가 있어 대답을 하고 절을 하니 스님께서 전법계를 내려주셔서 동산스님을 법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이 말씀처럼 자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실천으로 하루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불이 되니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길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을 새롭게 살려면 오늘의 첫마음을 잊지 말고 지나간 어제의 마음을 담아두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화엄경> 제11품 보살십주품을 보면 첫번째가 초발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마음을 잊지 말고 지나간 서운한 것, 원망스러운 것, 기분 나쁜 것 등은 담아두지 말라는 뜻이지요. 한 시점을 보내고 한 시점을 새롭게 맞이할 때 지나간 그 마음들을 담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할 때 그 묵은 마음까지 담아두게 되면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니 새롭게 시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생활의 지혜는 몇가지 구체적인 노력에서 출발합니다. 먼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든 내 생각에 맞추면 못마땅하거나 원망스럽다가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되어 버립니다. 두번째는 무슨 일든지 자기에게 비추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면 시비가 되고 자신에게 요구하는 마음이면 도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

세번째는 임제스님 말씀에 '수처작주(隨處作主)면 입처개진(立處皆眞)이니라' 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르는 곳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곳 그자리가 바로 진리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언제 무슨 일을 당하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 원망하는 마음에 앞서 오히려 사랑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꼭 남의 것을 대신해 주는 뜻이 사니 모든 것이 다 남 탓이 되어 버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도 저도 안되면 본래 없었던 셈 치세요. 원래 없는 것이라고 치면 기본 줄을 것도 나쁠 것도 없게 됩니다. 남의 잘못과 행동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행동이 법에 맞는지만 살피는 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근원이 그속에 일원으로 속해 있는 내게서 출발함을 깊이 살피 스스로 자각있는 행동을 해 나가도록 자신을 이끄는 있어야 하겠습니다.

정리=천미희 기자

경전

인왕경



김승호 동대 한국문학연구소 연구원

역사의 별별 격랑을 다 헤쳐온 우리에게 IMF구제금융 역시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그보다 더한 고초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였다. 돌려말해 과거를 돌아보면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아마 신라 고려시대에 지금과 같은 정도의 위기를 만났다면, 국가적으로 위난극복법회를 열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당시 단골처럼 베풀어졌던 것이 인왕백고좌회(仁王百高座會)였다.

1백명의 스님과 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불상과 불보살을 백구씩 봉안한 후에 백명의 법사를 초청하여 강설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 행사의 근거가 되는 경전이 <인왕경>이었다.

이 경은 신구역(新舊譯) 이본(二本)이 있다. 구역은 구마라습삼장이 번역한 것으로 <불설인왕반야바라밀경>으로 불렀고 신역은 불공삼장(不空三藏)이 번역하여 <인왕호국반야바라밀다경>

라는 소치이다. <인왕경>은 만물간의 인과율이거나 유기성을 강조하는 데서 나아가 개인과 위정자, 국가간의 관계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즉 국가적 위기일수록 반드시 음미 독송해야 할 말들로 채워진 보고라 할 수 있다. 가령 부처님이 16대국의 왕에게 설하는 아래 말은

"성하면 반드시 쇠하는 것/실한 것이 반드시 헛된 것이니/중생들은 이 살아가는 그 모습/도무지 환상에 지나지 않네/...형상(물질, 육신)과 정신은/언젠가 모두 떠나야 할 것/이 세상 모든 것 다 그러하거니/나라인들 어찌 그렇지 않을까."(호국품 제2)

확실히 IMF는 무상을 생각하게 해 주는 극적인 사건임이 틀림없다. 강의를 하거나 연구원에서 종종 "IMF시대니 우리도 IMF인간이네"라는 자조적인 농담을 듣는다. 달도 차면 기운다

16대국 왕과 부처님의 '위기극복' 문답 "강독하라... 나라 지키고 복덕 얻으리"

이라고 한다. 약해서 흔히 <인왕반야경> 혹은 <인왕경>이라 하기도 한다. 인왕(仁王)은 당시 16대국의 국왕을 일컫는 것으로 모든 왕에 대하여 부처님이 각각의 나라를 수호하여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반야바라밀다경>의 심법(深法)을 설한 경전이다. 이 경을 수지하거나 강설하면 칠난(七難)이 생기지 않을 뿐더러 재해가 없고 만민이 안락하게 되므로 옛적부터 <법화경> <금광명경>과 함께 호국삼부경(護國三部經)의 하나로 꼽아왔다.

<인왕경>은 총 2권8품으로 구성돼 있다. 제1품에서는 부처님 당시 파사익왕을 중심으로 16대 국왕과 부처님이 문답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품에서 7품까지는 내호(內護)와 외호(外護)의 방법을 밝힌 다음 그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8품에서는 불멸후에 정법이 쇠퇴하게 된다는 점을 주지시켜 일체 재난과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반야의 법문을 수지하는 것 밖에 없음을 일러주고 있다.

흔히들 불교의 지향점을 개인의 구원이나 참담으로 몰고간 나머지 주위를 외면하는 소극성을 환난하는 경우를 본다. 하지만 불교의 가르침을 모

고 하지 않던가. 우리는 무상을 생각할 겨를은 커녕 백일몽에 취해서 스토크의 미래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었던 과보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럴때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왕경>의 얘기를 들려준다.

"대왕이여, 하루 두 번 이 경을 강독하라...다만 나라를 지킬뿐만 아니라, 또 복덕을 지키는 힘도 될 것이며 부귀와 관위와 절보를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뜻을 이루게 하는 힘을 얻을 수 있느니라."

<인왕경>에서 대왕들에게 하신 부처님 말씀은 내호와 외호에 대한 깨우침이자 처량하기 이를데 없는 지경으로 추락한 이 나라와 국민들에게 옛적의 허물을 벗고 현실을 직시하며 사치와 방종에서 나와 자신을 신독하라는 가르침이다. 요약컨대 외적이 어느새 들어와 자리를 틀어 허세와 오욕으로 가득차 있는 마음을 버리라는 것이다. 이제 <인왕경>에서 말하는 심인(愍愍) 지인(悲愍) 견인(堅忍)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한다면, 오래지 않아 심중의 칠난(七難)은 소멸할 것이고 가라앉은 이 나라조차 승천하는 시간을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의 빛 자비의 샘 채널32 불교텔레비전

이계진 사나운서가 수리절 홍보 보좌관!



우리절 우리스님

방송시간 (50분간 1회본방 3회 재방) 매주 화요일 09:10~10:00 13:25~14:15 22:00~22:50 매주 일요일 18:40~19:30

" 불교텔레비전 '우리절 우리스님'에 출연하길 참 좋았어요." 언제봐도 믿음직한 불자 사나운서 이계진씨가 우리절 자정에 밝히고 나왔습니다. 우리끼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이따금 우리절 이야기 보따리를 요즘 잘 나가는 프로 '우리절 우리스님'에 나가 풀어보셨어요. 가슴속은 시원해지고 어깨는 으쓱해집니다.

* 출연문의 : 불교TV 영상사업부 02)3270-3368



불교 TV 서울 마포구 마포동 418번지

* 불교TV는 케이블TV에 가입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